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5주일

제29권 33호(나해) 2009 · 7 · 12

[묵상]



“그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마르 6, 12)

교회는 어느 한 곳에 머물며
자신만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공동체다.
세상에 나아가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여 이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공동체다.
필요한 것은 빵도 돈도 여행 보따리도 아니다.
오직 하나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듣고 받은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속되고 찌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따름이다.
더러운 영을 호령하여 쫓아내고,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병들고 허약한 자에게 치유와 위로를 선물하는 일이다.
선교를 위해 멀리 떠나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먼저 복음의 내용을 행동으로 살아야 하며
내 가정이 먼저 복음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복음의 향기를 이웃에 전하는 것이다.(大)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30 7:00 8:00 7:3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생)민석준 토마스와 영준 마르코, 신우용 안토니오, 윤종필 베네딕도
주 일 낮 미사	(연)장현숙 발라라,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이현호 요한, 김금련 아가다, 이금순 마리아, 박석규 베르나르도,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상현 베드로, 황인홍 빅토리아, 김홍배 루카, 이강봉, 임병삼 마리아, 하순희, 정윤 요셉, 박종남 마리아, 주광자 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이영자 마리아, 김영훈 세례자요한
	(생)안마르코, 안에스터, 박세빈 이벳, 박다빈 이레네, 정정현 베네딕다, 김미성 에스텔, 박명순 안나, 정진세 사이몬, 민예일 요한, 정우석 루카, 신영자 분다, 김서량 토마스, 최현찬 안드레아와 도로테아 가정, 최영신 프란치스코 부제, 구마리아네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아모스 예언서 (Prophet Amos) 7,12-15
화답송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주 하느님 말씀을 내 듣고 싶사오니,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제 2독서	에페소서 (Ephesians) 1,3-14<또는 1,3-1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마르코 (Mark) 6,7-13
영성체송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24	183
봉헌	269	256,259
성체	367	281,302
파견	372	218

17) 체외수정으로 얻은 배아 역시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체외에서 얻은 인간 배아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은 그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생물학적 물질’로 인간 배아를 만들어내는 일은 부도덕하다.”<생명의 선물 제1부 5항>

교회는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많은 배아를 만들어내어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파괴되거나 냉동되어 보관 후 실험실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착상된 배아가 여럿인 경우 낙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연구자는 마치 신(神)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자기 마음에 따라 인간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등 다른 인간 생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체외수정을 반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배아도 인간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배아나 태아에 대해서도 어른의 시신(屍身)처럼 상업적 거래를 금합니다.

18) 부부행위에는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의 출산이라는 불가분의 두 가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어떠한 부부행위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인간 생명 12항, 생명의 선물 제2부 4항>

인간의 성에 대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은 사랑을 바탕으로 남녀가 맺어진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출산이므로 이 두 가지 의의를 무시한 성의 남용은 자연법, 즉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전달을 방해하는 행위, 즉 피임, 단종, 그리고 낙태는 부부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항거하는 것이 됩니다.(인간 생명 13-14항 참조) 부부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적 결합 없이 출산만을 목적으로 한 부부간 인공수정 역시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합니다. 한 인간의 기원이 혼인을 통해 하나가 된 부부의 결합과 사랑의 열매일 때 부부 사이의 육체와 인격의 결합이라는 인간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소서.”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입니다.”(집회서 23,4; 30,22)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

내가 주임신부로 사목하던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신 불문학 교수님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조르주 베르나노스 저 / 정영란 역)를 최근에 선물로 받았다.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 책을 밤을 꼬박 새워 읽으며 심오한 영적독서를 접하는 심정이다.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프랑스의 가톨릭 작가인데 인간의 내면에서 해파리처럼 입 벌리고 있는 권태와 허위, 공허와 위선 안에 질게 드리워진 악의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젊은 사제의 모습 안에는 아르스 본당의 요한 비안네 성인의 삶과 영성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작가는 자주 ‘범용(凡庸)한 사제는 추하다’라고 가혹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 작품 안에서는 범용한 사제에게까지도 따뜻한 시선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사제는 위암의 병고를 늘 짊어지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내성적 성격으로 유약하고 서툴며 비효율적인 사목으로 자주 실수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을 우직하게 사랑하며 그 영혼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다. 약점투성이의 무능해 보이는 이 젊은 사제의 순수한 마음 안에 깃들어 있는 영적 감수성이 병들어 있는 영혼들의 내면세계를 꿰뚫어 보는 혜안으로 번득인다.

이 마을의 유지인 백작 부인과의 우연한 만남과 긴 영적 대화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을 중오하고 거부해 온 이 귀부인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평안히 있을지어다’하고 나는 부인에게 말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평화를 무릎 꿇고 받았었다.... 내가 그 평화를 부인에게 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신묘한 일인

가! 아아 우리들 두 빈손의 그옥한 기적이여!”(252쪽) 죽기 전의 편지에서 이 귀부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 조그만 아기에 대한 절망적 추억이 저를 모든 것에서 별리하여 무서운 고독 속에 몰아넣어 두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어린 아이 하나가 이 고독에서 저를 끌어내 준 것 같이 생각됩니다.... 신부님은 정녕 어린이시니까요. 좋으신 주님께서 신부님을 그대로, 또 영원히 지켜주시기를!(244쪽)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며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어린이의 마음이다.(마태 18,3-4)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8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의 부르심은 파견을 위해서이다. 즉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때 또한 부활하신 주님(kyrios)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in persona Christi) 일할 수 있다. 여기에 제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가난, 어린이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이는 바로 자신의 무력감에서 제 기쁨의 근본 원리를 겸허하게 이끌어 낸다. 어린이는 모든 것을 제 어머니에게 맡긴다. 제 온 목숨, 인생 전체가 어머니의 시선 속에 있는데, 그 시선은 바로 미소이다.’(베르나노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全無)’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全部)을 채워주시고 사도들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12-13절)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채승희 에스터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김정은 젬마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부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감사합니다. ☜

◆ 7월1일부터 2009년~2010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새로 조직 되었습니다.(주보 6면 참조)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 본당 수녀님 북미주 한인 수도자 피정 참가 중

- 일정 : 7월6일(월)~16일(목), 캐나다 터몬토 갈멜수도원
- 수녀님의 건강과 은혜로운 피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남가주 청년연합회 소풍 및 체육대회

- 일시 : 오늘 주일(12일), 백삼위 청년회/대학부 오전 9시
- 위치 : El dorado Park (Lakewood), 회비 : \$5/person
- 문의 : 배론 청년회 신임회장 최인용 안드레아 ☎(310)991-0995
- * 주차비가 \$5/car 이므로 카풀하면 편리합니다.

◆ 성모회 7월 총회

- 일시 : 7월18일(토) 오후 6시
- 장소 : 강당(오늘 주일 모임은 없습니다.)
- 저녁식사 제공, 성모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 백삼위 찬미의 밤

- 일시 : 7월18일(토) 오후8시~11시
- 장소 : 성모 동산
- 주제 : '주님께 찬미를'
- 준비물 : 두터운 옷, 묵주

◆ 레지오 마리에 쿠리아 '천상의 어머니' 창단

- 일시 : 7월19일 주일 낮미사 중에
- 회합 : 매달 둘째주일 오후 2시30분

- 단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 쿠리아(Curia)는 본당에서 활동하는 레지오 마리아의 기 본조적인 프레시디움(Presidium)의 상급조직을 일컫습니다.

◆ 윤재홍 박사의 '기(氣)치료' 특별 건강강좌

- 일시 : 7월19일(주일) 오후 1시~2시30분, 강의와 상담
- 장소 : 강당
- 제목 : 기(氣)와 건강
- 문의 : 요셉회 총무 권진열 피데스 ☎(310)800-3592
- * 강의 직후 난치병 위주로 예약순서대로 개별상담 있음.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토너먼트

- 일시 : 8월8일(토) 티오프 : 낮 12시
- 장소 : 엘도라도파크 골프코스
- 문의 : 신임회장 정충로 안토니오 ☎(310)991-6966
- 부회장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 DVD 보급

- 본국의 평화방송/평화신문은 지난 2월 선종하신 김수환 스 테파노 추기경의 추모영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출시, 해외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 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한글음성/영어자막/일어자막
-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가톨릭 장애인 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남가주 한인 가톨릭 장애인 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 봉사시간 선택 : 월~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30분
- 장소 : 작은 예수회 LA본원 내(1137 Arqpahoe St. LA, CA 90006)
- 문의 : 노장호 요셉 복지회 회장 ☎(213)387-3301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12일(주일) : 토런스 남1반(국밥) \$3)
- 7월19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부금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영정	김옥보	성전헌금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옥보	김용상
강덕희	김원모	김정순	김정희	김종렬	김종문	김원모	김정희	김종문	김종환	김진엽	김형순
김용상	김진엽	김형순	남명자	노찬술	노혜숙	남명자	노찬술	노혜숙	문영일	민기남	박개순
김종환	민기남	박개순	박동수	박상준	박연실	박동수	박상준	박연실	박준구	박희자	방정복
문영일	박희자	방정복	배기엽	송기철	송중두	배기엽	송중두	신대철	안연숙	안재만	엄혜은
박준구	안연숙	안재만	엄혜은	오영섭	유영균	유영균	유희연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신대철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봉덕	이석제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장숙환	정동호
유희연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장숙환	정충로	조영희	차인수	최길주	최의수	최인홍
이석제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장숙환	정충로	조영희	차인수	최길주	최의수	최인홍
정동호	정충로	조영희	차인수	최길주	최의수	최재은	최희태	하정화	한혜숙	영희가보라	
최인홍	최재은	최태훈	최희태	하정화	한혜숙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7,885							합계 : \$5,890

미사헌금 : \$2,400

2차헌금 : \$783

주일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찬미의 밤(Praise Night 2009)
- 일시 : 7월23일(목) 오후 8시~10시, 강당
 - 대상 : 8학년~12학년(Steubenville 참가자들)
 - 문의 : 나운아 안젤라 ☎(310)991-9920

-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75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 고등부 바이블 스타디(성경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룸 7
 - 대상 : 9학년~12학년(주일학교)
 - 지도교사 : 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베로니카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학생미사 : 매 주일 오전 9시30분. 여름방학 중에 자녀들이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 9월13일(주일)

남가주 소식

- ◆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의한 8박9일 침묵 피정
- 일시 : 8월12일(수)~8월20일(목)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집
 - 주제 : 예수님과 함께 갈망하는 삶을 향해
 - 지도 : 윤성희 이나시오 신부(예수회)
 - 주관 :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신청 : 정도로테아 ☎(818)321-9505

- ◆ 2009년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일정 : 8월22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8월23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16007 Crenshaw Bl. Torrance)
 - 강사 : 오스카 솔리스(LA대교구 보좌주교),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작은형제회 한국관구장), 현요안 요한 신부(세계성령대회 준비위원), 전홍식 요아킴 신부(베이커스필드 성당 주임), 반명익 라파엘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 참가비 : \$25(예약시 \$20)
 - 연락처 : 각본당 성령기도회 및 봉사회 ☎(213)435-7570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차 장 차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7/10(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	신덕례 데레사 634-6169	신덕례 데레사 634-6169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순희 모니카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11(토), 할리웃볼, 5:30 월슨팍 집합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엄영숙 마리아 995-5662 7/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임한나 325-6982 7/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7/19(일) 오전 10시 델슨팍 야유회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7/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3	박은혜 클라우디아 265-0856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P.V.구역 1,2,3,4반 합동반모임 7/11(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 백삼위 한인성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조직표 ◎
(2009년 7월~2010년 6월)

사목 평의회	
지문위원회	김정웅(평의회위원장), 지경수, 정기은, 임종택, 유철희, 오세원
법인이사회	임종택, 이재정
본당발전위원회	이경웅, 김대우, 문항범, 김종문, 서병교
감사단	이병권, 김병태
당연직 위원	김형순(요셉회), 이영희(안나회), 김찬구(양업회), 오해숙(성모회), 이영석(대건회), 윤은경(자모회), 김도형(원서회), 최인용(청년회), 황선홍(대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송종두(위원장), 강인모(간사), 회장단, 청소년분과, 주일/한국학교 봉사자

주임신부 박상대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총회장	이재정
부회장	이용식, 최기남, 윤희동, 고규재
총무부장	이재용
부총무	엄혜은, 정동호, 이남현, 권순길
본당사무장	홍석인

운영 위원회	
복음화분과	김충섭
사회복지분과	최상만, 유근우, 이인석, 서호춘, 오홍철
소공동체분과	차인수, 권진열, 이정훈
시설관리분과	박희자, (구역장/반장)
전례분과	김찬구, 서성웅, 김광일
조경분과	이인숙, 한애경, 유현화, 국수지
종교교육분과	이명렬, 최현찬, 김양금, 천광락
청소년분과	국세찬, 금영도, 이진항, 김유미
체육분과	강해원, 이혜레나, 육재민, 박상진
홍보분과	김철민, 정치영, 강호우, 나혁구
	송재훈, 김선제, 천남숙, 김낙기

재무 평의회	
위원장	배난군
간사	오지희
위원	안연숙, 신덕례, 유희연, 김학에 김성현, 김희연, 이승준

특별 위원회	
전례연구위원회	김정웅(위원장), 김대우, 정기은, 배기열, 김명숙
전례봉사위원회	성철봉사단, 전례봉사단, 봉사체봉사단
전례음악위원회	배기열(위원장), 김정화, 박소영, 서창호
H.P 관리위원회	이진행(위원장), 오태환, 성지용, 이상용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당발전과 하느님 나라 건설에 봉사하실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